

KODEX 미디어&엔터테인먼트 ETF (266360)

Kodex 는 한국을 대표하는 ETF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.

2023년04월30일 기준
준법감시인 승인필 202304-2ETF8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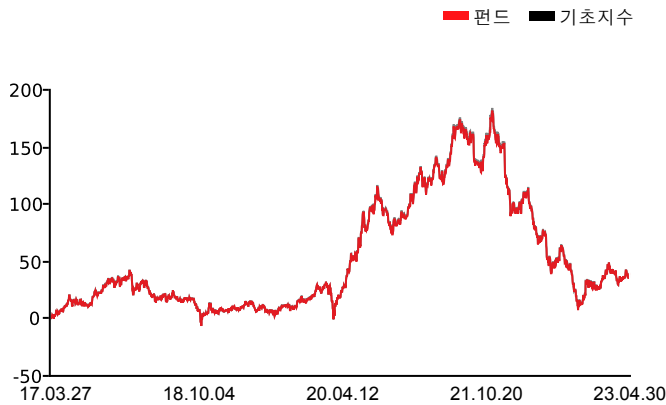
국내 미디어&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KRX 미디어&엔터테인먼트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ETF입니다.

누적수익률(%)

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설정후	연초이후
KODEX 미디어	2.77	0.20	19.79	-22.89	39.05	8.97
기초지수	2.83	0.34	19.48	-23.08	39.23	9.24
기초지수 대비	-0.06	-0.14	0.32	0.19	-0.18	-0.27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.

수익률 그래프(%)

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.

※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업종 비중(%)

서비스업	100.00
------	--------

상위 10종목(%)

NAVER	17.08
카카오	16.97
하이브	11.34
크래프톤	10.45
엔씨소프트	10.43
넷마블	6.38
JYP Ent.	3.61
에스엠	3.11
카카오게임즈	2.43
펄어비스	2.20

※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은 PDF구성내역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투자 위험 등급 : 1(매우 높은 위험)

1	2	3	4	5	6
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
※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
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,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편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지수소개

KRX 미디어&엔터테인먼트 지수는 2016년 9월 정기 변경일 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글로벌산업분류인 GICS(경제섹터-커뮤니케이션, 산업그룹-미디어&엔터테인먼트) 기준으로 변경하여 산출합니다. 이 지수는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유니버스(KRX BMI) 선정 후 KRX종목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모두 편입하여 유동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되며, 2007년 1월 2일(1,000 포인트) 기준으로 매년 1회 지수 정기변경이 이루어집니다.

※ 정기변경: 연 1회(9월)

기본정보

펀드명	삼성 KODEX 미디어&엔터테인먼트증권 ETF[주식]
기초지수	KRX 미디어&엔터테인먼트
펀드순자산총액	384.38억원
1주당 NAV	13,727.81원
총 보수	연 0.45%(지정판매 0.02%, 집합투자 0.39%) (신탁 0.02%, 사무수탁 0.02%)
최초 설정일	2017.03.27
상장일	2017.03.28
분배	분배금 발생 시 분기 지급
운용회사	삼성자산운용
사무수탁회사	신한펀드파트너스
수탁은행	하나은행
환매수수료	해당사항 없음
환매방법	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매도,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

※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거래정보

거래소	한국거래소
표시통화	원
거래단위	1주
설정단위	100,000주
거래소코드	266360
ISIN코드	KR7266360007
블룸버그 Ticker	266360 KS <Eq>

투자분배금 지급현황

지급기준일	분배금액(원)
2023.04.28	20
2022.04.29	10
2021.04.30	10

본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, 본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